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2월 12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문의 : 지식서비스과 이상훈 과장(2110-4770), 지민정 사무관(2110-4772)		

2013년 이러닝산업 제2의 도약 준비

-「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」 개소식 개최-
- 2013년 이러닝산업육성책 키워드는 "한걸음 더" -

□ '13년부터 '이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'와 '이러닝 이용표준 약관'이 제정될 예정이며, 이러닝기업 장비 공동활용, 해외시장 진출, e-트레이닝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○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12.12(수) 킨텍스에서 「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」 개소식을 개최하고, 2013년도 이러닝산업 육성책으로 "한걸음 더, 다가서는 이러닝" 전략을 발표함

<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 개요>

○ 위치 : 고양시 킨텍스 오피스동 13-14층 (전용면적 1,964㎡)

○ 구성 : 입주공간, 기술개발실, 테스트룸, 센터사무국

○ 입주현황 : 위두커뮤니케이션즈, 로보웨어, 참빛교육, 글로브포인트, 나래텍, 케이아이씨티그룹 등 12개사

○ 주관기관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



□ 금번 구축되는 「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」는 최근 IT서비스의 고도화,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등 급변하는 이러닝 산업환경에 직면하여 국내 이러닝기업의 체질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

○ 동 센터 주변에 집적될 파주출판단지, 한류월드,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, EBS 등 유관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스마트러닝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□ 센터는 '이러닝 공급기업의 경쟁력 강화'와 '스마트러닝 잠재 수요시장 활성화'로 글로벌 스마트러닝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

○ **(혁신역량 강화)** 테스트베드 구축 및 장비 공동활용 지원, 타산업과 융합을 위한 정보교류·네트워킹 활성화, 우수 제품 글로벌화 지원

- 이러닝 제품 개발 또는 기술성· 호환성 테스트 등에 필요한 장비·시설 공유 커뮤니티 구성*, 스마트러닝 융합 세미나 개최 정례화

* 장비·시설 소재 정보제공 및 예약·결제시스템 구축

- 국내 우수한 제품의 글로벌화(언어·문화, SW 측면)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, 제품 테스팅, 컨설팅, 국제협력 활동 등 지원

○ **(중소기업 스마트러닝 활성화)** 중소기업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러닝 서비스 플랫폼 구축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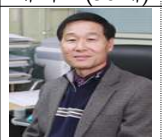
- 맞춤형 스마트러닝 콘텐츠 개발 또는 구입을 지원하고, 클라우드, N-스크린 기술 적용, 국제표준에 부합한 선도적 서비스 플랫폼 구현

○ **(e-트레이닝 보급·확산)** 산업기술 분야 명장 또는 교수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e-트레이닝* 시스템 개발, 보급·확산

* 가상, 증강, 3D, 햅틱 등 실감기술을 훈련기자재와 접목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의 산업훈련 서비스 제공(예 : 가상용접훈련, 가상항만크레인조종훈련)

- 산업현장 전문가의 지식을 DB화하여 기존 e-트레이닝 시뮬레이터에 접목, 학습관리시스템(LMS)과 연동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

<산업현장 전문가 예시>

분 야	전문가	주요약력
천장크레인	 채희교(56세)	'87~'94, 성림기업 천장크레인 담당 '04~'10, 유성디엔에스 천장크레인 담당 현, 부산TP 기술지원센터 천장크레인 교육 담당 현, 산업인력공단 천장크레인 문제 검토위원
용접훈련	 김중영(55세)	'81~현, 한국폴리텍대 용접 교육 '09, 용접배관 분야 직무수행능력표준개발

- 산업기술대, 폴리텍대, 마이스터고 등 산업기술 교육 현장에서의 e-트레이닝 시범 서비스 적용 지원

□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「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」개소식 축사에서 “국내 이러닝 기업이 혁신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”고 언급하면서

○ 특히 “e-트레이닝은 고위험, 고비용이 수반되는 산업기술 훈련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, 은퇴한 명장들의 기술을 보존, 확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”이라고 평가함

□ 한편, 지경부는 ’13년도에 이러닝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“이러닝, 한 걸음 더 다가서기” 전략을 제시함

① **(이러닝 서비스, 소비자를 향해)** 소비자 친화적 이러닝이용표준약관 제정·보급, 이러닝 콘텐츠 품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

- △이러닝 이용자의 청약철회 권리 보장, △계약체결전 시범학습기간 부여, △계약 해제·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의무 규정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이러닝 이용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관 제정

-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고시

② **(이러닝 대-중소기업, 동반성장을 향해)** 이러닝 대-중소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

- 이러닝콘텐츠 용역 개발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계약관계에서 ‘을’인 콘텐츠 개발사 권리 신장

- 콘텐츠 개발 공공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여부 판단을 위해 대기업 쏠림 현상 상시 모니터링

③ **(정부지원 서비스,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향해)** 「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」를 통해 이러닝 중소기업이 기초 체력을 키우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*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

- ‘이러닝 CEO 아카데미(가칭)’를 운영하여 이러닝 기업 경영자 역량 강화, 타 분야 CEO 그룹(예: 로봇, 전자출판 등)과의 네트워킹 지원

④ **(이러닝기업, 글로벌 시장을 향해)** 국내 이러닝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이러닝 산업의 성장 정체 돌파

- 미국·유럽·남미 등 전략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, 로봇·전자칠판 등 하드웨어 기업과 해외 동반진출 성공 사례 창출

□ 이러닝은 매년 10% 내외로 성장하여 ’11년 매출액이 2.5조원에 달하는 외형상 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, 기업당 연매출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이러닝 기업의 체감 온도는 혹독한 상황

○ 금일 「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」 개소와 이러닝산업의 질적 발전을 꾀하는 2013년 정책 청사진 제시를 계기로 이러닝산업 제2의 도약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

첨부1 「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」 개소식 개최계획(안)

□ 추진배경

○ 스마트러닝 산업기반 조성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「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」의 공식 출범을 위한 개소식 개최

□ 행사개요

○ 일시·장소 : ’12.12.12(수) 10:00~10:50, 고양시 킨텍스 오피스동

○ 참석자

- (정부)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, 고양시의회 의장, 고양시 부시장
- (기관·협회)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, 전자부품연구원장,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, 한국이러닝산업협회장
- (기타) 이러닝기업 15개사, 주한스페인대사관 상무관

□ 행사일정(안)

○ 개소식(1층 로비) → 현판 제막 및 센터 투어(14층)

구분	시간		내용	비고
개소식 (1층)	10:00~10:02	2′	개소 선언 및 귀빈 소개	사회자
	10:02~10:05	3'	경과보고 및 센터 운영계획 발표	센터장(NIPA 단장)
	10:05~10:08	3′	인사말	NIPA 원장
	10:08~10:11	3′	축사	지경부 성장동력실장
	10:11~10:14	3′	환영사(1)	고양시의회 의장
	10:14~10:17	3′	환영사(2)	고양시 부시장
	10:17~10:22	5′	< 이동 >	1층 로비 →14층
센터 투어 (14층)	10:22~10:30	8′	현판제막 및 기념촬영	실장, 주요 내빈
	10:30~10:40	10′	입주기업 방문	안내 : NIPA
	10:40~10:50	10′	기술개발실 방문	안내 : 전품연

첨부2 「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」 개요

□ 사업 개요

○ (목적) 스마트러닝 산업기반 조성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「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」 구축·설립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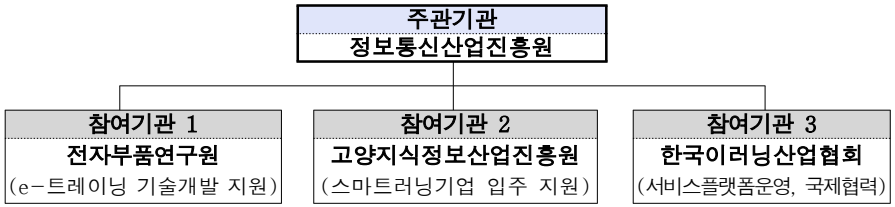
* 스마트러닝 : 기존의 “이러닝”과 “e-트레이닝”을 포함하면서 멀티미디어 기능, 데이터 처리·전송속도, 서비스 이용방식 등이 한단계 진화된 개념

○ (위치·면적)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오피스동 13~14층 전층(전용면적 1,964㎡) 활용, 센터 사무국, 기술개발실, 기업 입주공간 구축

○ (예산) ’12년 30억원(국비) → ’13년 31.4억원(국비 27.4억원+고양시 4억원)

* 총 사업기간 5년간(’12~’16) 정부예산 약 200억원 투입 계획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센터 주요 기능

○ (산업기반 구축) 신생·영세기업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, 제품 개발·테스트 환경 등 제공

○ (스마트러닝 확산) 중소기업의 이러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운영

* ’11년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률(4%)은 공공기관(79%), 대기업(63%)에 비해 저조

○ (e-트레이닝 육성) 가상·증강·3D기술과 훈련기자재를 결합해 산업훈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e-트레이닝 시범서비스 개발

* e-트레이닝 : 대표적인 스마트러닝 분야로 세계시장은 ’18년 884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

□ 입주기업 현황 : 중소기업 8개사, 1인기업 4개사

* 센터에 최대 20개사 입주 가능(중소기업 10개사, 1인기업 10개사)

한걸음 더,
다가서는 이러닝

e-learning
one step closer to learners, companies, and global market

2012. 12. 12

지식경제부
지식서비스과

목 차

Ⅰ. 검토 배경 ····· 1

Ⅱ. 이러닝산업 현황 및 개선방향 ····· 2

Ⅲ. 이러닝, 한걸음 더 다가서기 ····· 4

1. 이러닝 서비스, 소비자를 향해 ····· 4
2. 이러닝 대-중소기업, 동반성장을 향해 ····· 5
3. 정부지원 서비스,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향해 ····· 6
4. 이러닝 기업, 글로벌 시장을 향해 ····· 8

Ⅳ. 향후 추진일정 ····· 9

Ⅰ 검토 배경

□ '이러닝'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인적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수단

○ 정부는 이러닝을 선도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 전국가적으로 이러닝을 확산하기 위해 '04년 「이러닝산업발전법」 제정

○ 이에 근거, 이러닝 기술개발, 표준, 인력양성 등 산업육성책과 공공·교육기관, 사업체의 이러닝 이용 확산 등 수요견인책 병행 추진

□ 성장산업으로서의 위상 확립, 이러닝 도입률 확대 등 가시적 성과 달성

○ 이러닝 기업 매출액은 '04년 1.3조원에서 '11년 2.5조원으로 약 2배 성장, 기업수는 동기간 248개에서 1,656개로 6배 이상 증가

○ '11년 국민 절반 이상(52.8%)이 이러닝을 이용할 만큼 대중화, 특히 정규교육기관의 도입률은 82.3%로 매우 높은 수준

□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개별 기업의 수익성 악화, 소비자 인식 미흡

○ 비즈니스 확장으로 이러닝 기업간 출혈경쟁 심화, 이러닝 개별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하락과 영세사업자 비중 확대 야기

* 기업당 연평균 매출액(억원) : ('07) 22.8 → ('09) 15.3 → ('11) 14.8
* 연평균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사업자 비중(%) : ('07) 46 → ('09) 56 → ('11) 55

- 특히 이러닝 콘텐츠, 솔루션 전문기업은 이러닝 서비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 대부분 의존, 안정적 수익 확보에 애로

○ 일부 영세한 이러닝 서비스 기업은 브랜드·품질 관리, 서비스 운영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역량 노출, 이러닝 소비자의 신뢰 형성에 장애

⇒ 이제는 이러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고민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때

○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, 이러닝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을 통해 선순환 성장 패러다임으로 재편할 필요

Ⅱ 이러닝산업 현황 및 개선방향

□ 이러닝 소비자 피해 증가, 서비스 만족도 하락

○ (소비자 피해)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러닝 소비자상담 건수는 ('07) 1,473건 → ('11) 5,633건으로 약 4배 증가

* 피해유형 : 계약해지 71.6%(854건), 청약철회 7.5%(90건), 위약금 5.3%(65건)

○ (서비스 만족도) 소비자의 전반적인 이러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비율은 ('07) 61.7% → ('11) 49.6%로 12.1%p 감소

- 특히 이러닝 콘텐츠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

* 항목별 변화('07→'11) : (시스템안정성)61.3→51.2, (콘텐츠다양성)54.6→48.6, **(콘텐츠수준) 64.9→45.7,** (학습시간적정성)66.7→48.0, (비용절감)75.3→65.1, (학업성취도)47.3→38.8

☞ (개선방향) 이러닝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책 마련
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제도 운영 내실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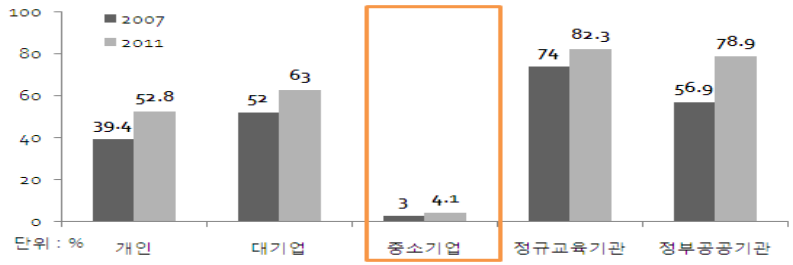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 이러닝 활용 저조

○ '11년 중소기업 이러닝 도입률은 4.1%로 대기업 이러닝 도입률 63%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

* 상시 근로자 30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-중소기업 구분

○ 정부·공공기관은 적극적 정부시책에 힘입어 78.9%의 높은 도입률 달성

< 이러닝 이용률·도입률 증감 추이('07-'11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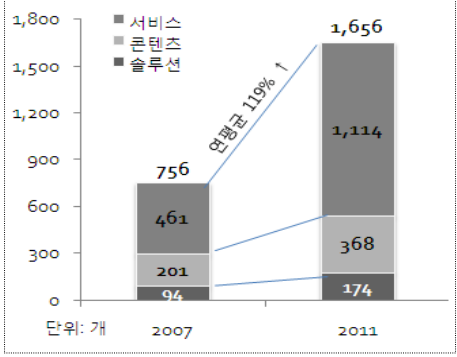
☞ (개선방향) 중소기업의 이러닝 활용 지원책 수립

□ 과당경쟁, '갑' 중심의 거래 관행으로 인해 이러닝 중소기업 영세성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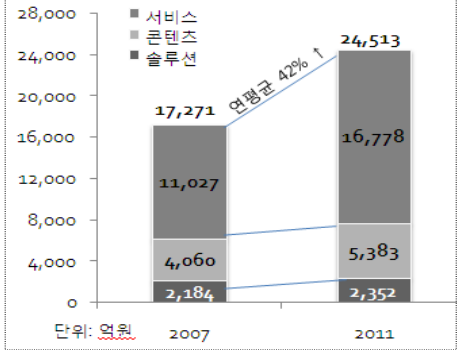
○ (과당경쟁) 이러닝은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 신규 진출 용이,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자수 증가는 기업당 연평균 매출 하락으로 연결

* 최근 5년동안('07-'11) 기업당 연매출액은 22.8억원에서 14.8억원으로 하락, 이러닝 사업자수는 119% 상승하였으나, 매출액 상승률은 42%에 그침

<이러닝 사업자수>



<이러닝 매출액>



○ ('갑' 중심의 거래) '갑'에 해당되는 이러닝 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계약 관행*으로 중소 콘텐츠, 솔루션 기업의 경영난 가중

* 무리한 사업단가 삭감, 지재권료 전가, 소비자 피해책임 전가, 용역범위 임의변경 등

☞ (개선방향) '갑'과 '을'이 동반 성장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

□ 이러닝 기업 성장단계는 '성숙기'이나 글로벌 진출 실적은 초라

○ 이러닝 기업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이러닝 기업의 성장단계가 '고도성장기'를 넘어 '성숙기'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는 견해 우세

* 응답비율(%) : 창업기 1.1, 초기성장기 27.6, 고도성장기 27.7, **성숙기 39.8**, 쇠퇴기 3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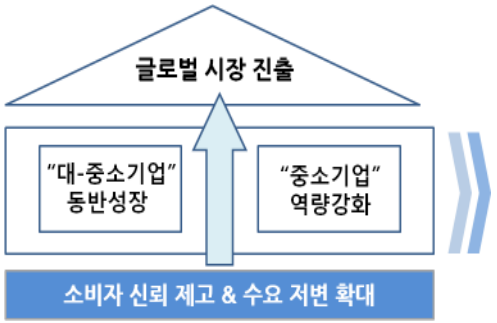
○ '11년 1,656개의 이러닝 기업 중 해외진출한 기업은 91개(5.5%)에 불과, 시장정보 수집, 판로개척 및 해외 유통망 확보 등에 애로

☞ (개선방향) 이러닝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
Ⅲ 이러닝, 한걸음 더 다가서기

【 개념도 및 중점추진과제 】

비전 ; 글로벌 스마트러닝 강국 실현



중점추진과제

1. 이러닝 서비스, 소비자를 향해 한걸음 더
2. 이러닝 대-중소기업, 동반성장 향해 한걸음 더
3. 정부지원 서비스, 중소기업 역량강화 향해 한걸음 더
4. 이러닝기업, 글로벌 시장을 향해 한걸음 더

1 이러닝 서비스, 소비자를 향해

◈ 소비자 친화적 이러닝 서비스 구현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이러닝 전반에 대한 신뢰 축적, 이러닝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

◈ 이러닝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이러닝 접근성 향상 지원책 마련, 중소기업의 이러닝 이용 활성화

□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정·보급

○ 이러닝 서비스 기업이 활용 가능한 '이러닝 이용표준약관' 제정·고시*,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 예방

* 「이러닝산업발전법」 제25조 3항에 의거,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

- △이러닝 이용자의 청약철회 권리 보장, △계약체결전 시범학습기간 부여, △계약 해제·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의무 규정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이러닝 이용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관 제정

○ 소비자단체와 한국이러닝산업협회가 공동으로 표준약관 준수실태 모니터링·시행권고 활동을 추진토록 지원

□ 이러닝 콘텐츠 품질향상 지원 및 이러닝 접근성 개선

○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을 지정*하고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고시**(중기청과 협의)

*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중 인력, 조직, 전문성, 설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

**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중기청 고시 제정

○ "이러닝 콘텐츠 검색·비교 → 시범학습 체험 → 구매·이용"이 가능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, 이러닝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

- 이러닝 서비스 기업·기관 및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상위 리스트 공표

□ 중소기업 맞춤형 이러닝 활용 지원

○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모델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·구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HRD 투자 부담 완화, 인적경쟁력 향상에 기여

* 1차 타겟 그룹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(G밸리) 입주기업 12,000여개사

<중소기업 이러닝 활용 지원 프로세스>

학습유형 선호도조사	→	교육내용 구성 및 평가지표 개발	→	신규 콘텐츠 개발, 기존 콘텐츠 구입	→	체험단 구성 및 시범 서비스 운영	→	피드백 및 업그레이드
분석		기획		개발		테스트		서비스

2 이러닝 대-중소기업, 동반성장을 향해

◈ 이러닝 대-중소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통해 이러닝 산업에 고착화된 영세성 탈피,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

□ 이러닝 콘텐츠 용역 계약 '갑'과 '을' 이익 균형 추구

○ 이러닝 서비스 기업(갑)과 콘텐츠 기업(을)간 공정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해 '이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' 제정(문화부와 협의)

*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제25조에 의거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

- △콘텐츠 개발 업체에게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귀속, △과업내용 변경시 대금조정 의무화, △'을'에 대한 일방적 비용(검수비용, 제3자 권리획득 비용 등) 전가 등 콘텐츠 전문기업의 권리 보장 규정 도입

○ 표준계약서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, 이러닝 사업자단체 대상 교육·홍보, 표준계약서 활용 우수 기업 선정·발표

□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공공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

○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공공 시장에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경우, 일정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

* 「이러닝산업발전법」 제20조의5에 의거,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기업참여제한 하한금액을 정하여 고시

3 정부지원 서비스,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향해

◈ 「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」를 통해 이러닝 중소기업이 기초 체력을 키우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*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

* 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, 통신서비스 고도화,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등 이러닝 활용 환경 급변

□ 이러닝 기업 입주 및 장비 공동활용 지원

○ 사무공간 확보에 애로를 겪는 이러닝 중소기업, 1인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제공, 임대료·관리비 등 할인혜택 제공

* 고양시 킨텍스 오피스동 13-14층에 총 20개사(중소기업 10, 1인기업 10) 입주 가능

○ 이러닝 제품 개발, 기술성·호환성 테스트 등에 필요한 장비·시설의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*

* 장비공유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장비 소재 정보제공 및 예약·결제시스템 구축

□ 이러닝 콘텐츠 중소기업을 위한 오픈 서비스 플랫폼 제공

○ 유통망 확보에 애로를 겪는 이러닝 콘텐츠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 주도의 오픈 스마트러닝 서비스 플랫폼 제공

- 클라우드, N-스크린 기술 접목, 국제표준 준수, 언어팩 지원 등 선도적 스마트러닝 플랫폼 구축

○ 우수 콘텐츠 확보, 콘텐츠 품질인증 마크 표시 의무화, 안정적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신뢰 확보

□ e-트레이닝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 확대

○ 현장 전문가의 지식을 DB화하여 기존 e-트레이닝*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

* 가상, 증강, 3D, 햅틱 등 실감기술을 훈련기자재와 접목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의 산업훈련 서비스 제공(예 : 가상용접훈련, 가상항만크레인조종훈련)

○ 산업기술대, 폴리텍대, 마이스터고 등 산업기술 교육 현장에서의 e-트레이닝 시범 서비스 적용 지원

□ 이러닝 CEO 역량 강화

○ '이러닝 CEO 아카데미(가칭)'를 신설하여 이러닝 기업 경영자 역량 강화, 타 분야 CEO 그룹(예: 로봇, 전자출판 등)과의 네트워킹 지원

* 이러닝 분야는 기술자 출신의 CEO가 많아 체계적인 경영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

□ 이러닝 산업특수분류 신설

○ 교육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이러닝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러닝 산업특수분류 신설(통계청과 협의)

* 산업특수분류 사례 : 물류, 스포츠, 콘텐츠, 관광, 로봇, 정보통신기술, 저작권, 환경, 자동차전용부품제조업, 에너지 등 10개

4 이러닝기업, 글로벌 시장을 향해

◈ 2.5조원의 이러닝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국내 이러닝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이러닝 산업의 성장 정체 돌파

□ 해외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

○ (미국) 세계 최대 이러닝 시장(286억불, 61% 점유)을 보유한 미국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의 마케팅 플랜 수립, 전략적 파트너 매칭 지원

* 美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인 "U.S. Market Access Center"와 협력

○ (스페인) 4.5억명의 스페인 언어권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스페인과 전략적 제휴,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모색

* 양국 이러닝산업협회간 이러닝 협력에 관한 MOU 체결('12.6)

- 해외 전시회 참가시 한-스페인 공동 기업관 구성, 이러닝 사절단 파견, 프로젝트 정보 교류 등 양자 협력사업 지속 발굴·추진

□ 이러닝, 하드웨어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

○ 이러닝과 로봇 업계의 글로벌 동반 진출 방안 모색을 위해 양 업계 협회 주도로 「스마트러닝-로봇 협의체」 설립

* 한국이러닝산업협회-한국로봇산업협회간 업무협력 MOU 체결('12.12.4)

- 해외시장을 겨냥한 '이러닝 콘텐츠+로봇' 융합 기술개발 및 시범 보급 사업, 해외 마케팅 등 공동 추진

○ 이러닝과 로봇간의 협력 모델을 토대로 전자칠판, 태블릿 PC 등 다른 하드웨어 업계와도 교류·협력 확대

□ 「이러닝 코리아」 행사를 아시아 최대 마켓 플레이스로 육성

○ 해외 바이어, 해외 기관·기업의 참가 비중 확대를 통해 이러닝 국제행사로서의 위상 제고 및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

* 참가국 ('12) 16개국 → ('13) 20개국, 해외기업 ('12) 27개 → ('13) 40개

Ⅳ 향후 추진일정

No.	실천과제	협조부처	추진시기
1	**이러닝서비스, 소비자를 향해**		
	·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정	공정위	~'13.1
	·이러닝 콘텐츠 품질향상 지원 및 이러닝 접근성 개선	중기청	연중
	·중소기업 맞춤형 이러닝 활용 지원		'13.2~
2	**이러닝 대-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향해**		
	·이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 제정	문화부	~'13.3
	·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관련 대기업 참여 제한 시행 여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		연중
3	**정부지원 서비스,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향해**		
	·이러닝 기업 입주 및 장비 공동활용 지원		'12.11~
	·스마트러닝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구축·운영		'12.11~
	·e-트레이닝 중소기업 기술 지원 확대		'12.11~
	·이러닝 CEO 역량 강화		'13.2~
	·이러닝 산업특수분류 신설	통계청	~'13.9
4	**이러닝기업, 글로벌 시장을 향해**		
	·해외 전략시장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		'12.11~
	·이러닝+하드웨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		'12.11~
	·이러닝 코리아 행사 확대	교과부 문화부	~'13.9